

## 한국전쟁 정전협상 논의기 공산권 지도자의 전략목표와 협력·갈등\*

최윤철(상명대학교)

이 연구는 한국전쟁 정전협상 논의 기간 북·중·소 공산권의 협력과 갈등의 동학을 다루었다. 이념적 가치의 공유로 강한 동맹을 맺은 국가들이라 할지라도, 전쟁 수행을 매개로 하여 국가정책을 수립할 때는 자국의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했다. 한국전쟁 당시 공산권의 역할은 상당 부분 분리되어 있었다. 전쟁 당사국인 북한, 지원국인 중국, 후원국인 소련은 전쟁에 참여하는 역할에 따라 추구하는 국가이익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협력과 갈등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공산권의 정전협상 논의 시기, 각국의 지도자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이념을 공유하고 상호 동지적 관계에서 협력하였으나 국가이익을 앞에 놓고는 상당한 수준에서 갈등관계를 보였다. 결국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의무’라는 이념적 가치는 강대국이 약소국의 정책을 강제하는 기제로 활용된 측면이 강했다. 그 배경에는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성장하면서 인식하게 된 국제정치 논리와 개인적 특성들이 투영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전쟁 정전협상 논의 기, 북·중·소 정치지도자들은 대외 정책을 결정할 때,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는 이념적 가치보다 상대적 국가이익과 정치지도자의 국내 정치권력 확립에 더 무게를 두었다. 이러한 갈등과 협력의 배경에는 각 정치지도자들이 성장과정에서 얻은 국제정치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개인적 특성들의 영향도 있었다.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한국전쟁 정전협상 과정의 북·중·소의 협력과 갈등”(북한대학원대학교, 2015)의 제2장·제3장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 1. 머리말

이 연구는 공산권의 정전협상 논의기 북·중·소의 협력과 갈등 과정을 고찰하고 그러한 협력과 갈등의 근본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국가 간의 협력과 갈등의 실체는 국가의 정치지도자가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려 할 때 나타난다. 국가의 정치지도자가 정책을 결정하고 그 시행을 지도할 때는 먼저 고려요소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수행하게 된다. 그러한 설정 배경에는 정치지도자의 역사관과 국제정치에 대한 경험적 요소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공산권의 정전협상 논의기 각국의 전략목표와 그에 따른 협력과 갈등의 동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1953년 3월, 스탈린의 사망으로 한국전쟁은 일대 전환을 맞게 되었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물리적 충돌로서의 한국전쟁은 종결되었다. 한국전쟁과 정전협상 기간 중 공산권의 정책 결정과정을 볼 때, 정책은 국가이익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수립·추진되었고, 한편에서는 권력의 공고화 추구 정도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기도 하였다. 결국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정책 결정에 있어 이념적 공통분모가 되었으나, 각국이 추구하는 국가이익 앞에 이는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이었다. 특히 공산권 국가의 계서적 서열 관계에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강대국이 상대적 약소국에게 자신의 정

책을 강요하거나 지도할 때 하나의 명분으로 작동하는 기제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

이 연구에서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정전협상 장기화의 근원은 어디에 있으며, 중국과 북한은 심대한 물적·인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상의 장기화 전략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는가’이다. 또 하나는 ‘정전협상 논의기 북·중·소의 갈등과 협력의 배경과 각국의 정치 지도자의 개인적 경험요소와 상관관계가 있는가’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경향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전쟁의 정전협상 논의 과정에서, 공산권 각국이 추구했던 목표는 알타체제와 냉전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국제정치 환경하에서 이미 설정되었던 각국의 목표, 즉 국가이익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공산권 전쟁 수행의 지도자들인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은 이러한 국제정치의 틀과 기준에 설정되었던 각국의 목표를 유지하면서 공산권 자체의 정전협상 논의에 임했다는 것이다. 둘째, 냉전체제 하에서 북·중·소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의무에 기초하여 연대를 유지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강도는 달랐지만 전쟁 수행과 정전협상이 논의되는 과정에서도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우선 추구하였다. 위기 상황에 따라서는 단일지도체제 확립을 우선 추구한 경우도 있다. 결국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적 관계는 부차적이었다.

연구는 기본적으로 1차 사료들이 중점적으로 활용되었다. 이 사료들을 시계열적으로 정리하고 사실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각 지도자의 의도와 전략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었다. 연구는 공산권 문서들을 기준문서로 하여 진행되었다. 1989년 소련이 붕괴된 후, 러시아는 ‘한국전쟁 관련 구소련 극비문서들’을 공개하기 시작하

였다.<sup>1)</sup> 1994년 러시아 옐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달한 『한국전쟁 관련 러시아 문서: 기본문헌』과 『한국전쟁 관련 러시아 문서: 보충문헌』이 대표적인 문건이다. 이후에도 계속된 문헌 발굴에 의해서 공개된 자료들을 참고하였다.<sup>2)</sup>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료들과 러시아와 중국에서 공개한 타 출처의 자료들을 시계열적으로 정리한 후, 종합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인과관계를 설명하였다. 공산권의 정전협상 기간 중의 협상 전략과 갈등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소련과 중국의 사료가 다수 공개되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연구의 상당부분은 정전협상 과정을 분석하면서 대체로 협상의 지연과 전쟁 장기화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맞추어져 있고, 정전협상의 전후 과정에서 이루어진 북·중·소의 협력과 갈등과 연계하여서는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못하다. 또한 북·중·소의 갈등과 협력을 다루더라도 당시의 협상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측면이 많고<sup>3)</sup> 각 지도자의 성장배경과의 깊이 있는 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중국 연구자

1) 이 일환으로 러시아 옐친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대통령문서보관소」와 「러시아연방 대외정책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던 1949년 1월부터 1953년 8월 사이의 한국전쟁 관련 문서 가운데 일부인 『한국전쟁 관련 러시아 문서: 기본문헌』(100건, 279쪽)과 『한국전쟁 관련 러시아 문서: 보충문헌』(116건, 269쪽)을 1994년 6월 2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2) 다음의 문헌 등을 참조.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편역, 『라주바예프의 한국전쟁 보고서(제1~3권)』(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1); 아나톨리 토르쿠노프,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구종서 옮김(서울: 에디터, 2003);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한국전쟁과 중국 I-II』(서울: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2002).

3) 이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윌리엄 스텝, 『한국전쟁과 미국 외교정책』, 서은경 옮김(과주: 나남출판, 2005); 이병주, “共產軍側과 韓國戰爭 停戰會談: 스탈린, 마오쩌둥의 協商指導와 日標의 차이점,” 『戰史』, 제5호(2003); 허만호 외, 『한국전쟁과 휴전협정』(서울: 집문당, 1998); 기광서, “한국전 개입에 나타난 스탈린의 역할 실상,” 『軍史』, 제63호(2003).

들에 의한 분석물은 국제관계에서 힘의 역학 관계를 경시하거나 중국 중심의 기술 경향이 강하여 가치중립적이지 못한 한계가 있다.<sup>4)</sup> 이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으로부터 출발하였다.

## 2. 분석의 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냉전체제 구도로 고착되어가고 있었다. 냉전체제하에서 공산주의 국가들은 소련을 정점으로 하여 계서적인 국제질서가 유지되고 있었고 이러한 환경하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공산권은 소련을 최정점으로 하여 북한은 전쟁의 당사국으로서, 중국은 전쟁 지원국으로서, 소련은 전쟁 후원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전쟁 전반에 걸쳐 각국이 국가이익을 추구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한국전쟁을 수행하는 각국의 입장과 국가 간의 계서적 관계로 보았다. 두 번째 고려 요소로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의무에 의한 협력관계다. 정책 결정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의무는 크게 고려되는 요소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는 공산권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 정체성의 기초였고 협력의 명분이 되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세 번째 고려요소는 각국 정치지도자들의 정치적 성장 환경이다. 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민족문제, 계급문제 등 역사에 대해 인식하게 되

---

4) 이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선즈화, 『조선전쟁의 재탐구: 중국·소련·조선의 협력과 갈등』, 김동길 옮김(서울: 선인, 2014); 양쿠이슝, “중국군의 정전협상 전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I』(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지안 첸, “중국의 한국전 개입과 공산블럭의 협력,” 국방대학교안보문제연구소, 『6·25전쟁과 한반도 평화』(서울: 국방대학교, 2000).

<그림 1> 북·중·소의 목표와 협력·갈등



있고, 이러한 경험요소가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sup>5)</sup> 이들이 정치권력을 획득한 이후에는 정치권력의 견고성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었다.<sup>6)</sup> 이러한 각국 정치 지도자들의 개인적 특성이 국가정책 결정시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전체적으로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의 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정전협상 논의 과정에서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전략을 수립했는가’, ‘대응전략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의 협력과 갈등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가’, ‘의사결정시 영향을 미친 요소들과 그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가’ 등이다.

5) 이와 관련된 이론과 내용은 다음을 참조. Alexander L. George and G. L. George, *Woodrow Wilson and Colonel House: A Personality Study*(New York: John Day, 1956); 이상우·하영선 엮음, 『현대국제정치학』(서울: 나남출판, 1994), pp. 424~426.  
6) 세르게이 곤차로프·존 루이스·쉐리타이, 『흔들리는 동맹: 스탈린과 마오쩌둥 그리고 한국전쟁』, 성균관대학교 한국현대사 연구반 옮김(서울: 일조각, 2011), 49~70쪽 참조.

### 3. 북·중·소 지도자의 성장환경 및 역사인식

#### 1) 스탈린의 세계관과 대중(對中) 인식

1930년대 말부터 스탈린의 정치권력은 확고하였고,<sup>7)</sup> 그는 그의 역량을 소련의 국가이익에 집중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국제정치체제가 재편되어 각 주요 국가들이 국가목표를 새로이 정립하고 있었다. 스탈린의 정책은 2차 세계대전으로부터의 경험과 미국과의 대립관계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스탈린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소련의 국가이익을 추구함에 있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기반을 둔 세계혁명은 하나의 수단 또는 대외전략에서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었다.<sup>8)</sup>

소련 대외정책의 중심은 유럽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후 소련이 아시아에 진출한 것은 일본과 전투를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유럽에서 동맹국들의 승리가 확실시되자 미국의 동의하에 소련이 참전하였다. 소련은 급격히 중국의 동북 지방으로 진격해 일본군에게 대대적인 공세를 전개했으며, 이를 통해 아시아에서 군사력에 의지해 획득한 유리한 외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sup>9)</sup> 제2차 세계대전이

---

7) 볼코고노프는 1939년에 소련 공산당은 이제 스탈린주의 정당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드미트리 볼코고노프, 『스탈린』,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옮김(서울: 세경사, 1993), 19, 203쪽.

8) 볼코고노프는 스탈린의 생각이 국가이익 중심으로 전환되었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코민테른을 해산하기로 한 스탈린의 결정은 1939년부터 벌써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라면 이데올로기적 원칙도 서슴지 않고 포기할 수 있는 스탈린의 행동을 기억하는 예리한 관찰자들을 결코 놀라게 하지 않았다.” 위의 책, 259, 265쪽.

9) 쉬나벨·왓슨, 『미국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상)』,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옮

끝난 뒤 스탈린은 과거 제정 러시아를 통치한 군주들처럼 소련의 주변지역을 장악하고 유럽과 중동은 물론 아시아에서 잃어버린 영토와 영향력을 되찾기를 갈망했다. 스탈린의 야망은 완충지대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소련의 지정학적인 지위를 굳건히 하려는 제국주의적 욕구에 따라 형성된 것이었다.<sup>10)</sup>

스탈린의 지정학적 관점은 제정(帝政)러시아가 중국 동북지역에서 지배했던 세력을 회복하는 데까지 연결되어 있었다.<sup>11)</sup> 소련은 1945년 2월 8일 얄타협정을 통해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전후(戰後) 대중국 이익을 보장받았다.<sup>12)</sup> 이 밀약은 사전에 장제스(蔣介石) 정부와 협의 없이 맺어졌다.<sup>13)</sup> 소련군이 중국 동북지방에 대거 진입한 후 장제스는 8월 14일 불평등한 중·소동맹조약에 서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창춘(長春)철로에관한협정’, ‘다련(大連)에관한협정’, ‘뤼순(旅順)항에관한협정’ 및 ‘부속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장제스가 이끄는 중화민국 국민당 정권은 취약함을 드러냈고 중국공산당은 세력을 확장했다. 이 상황은 스탈린으로 하여금 얄타협정을 통해 얻게 되는 소련의 국가이익과 공산주의 국가 리더로서 수행해야 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의무 사이에서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결국 중소 간에 장기간 상호 의심의 유발시켰다.<sup>14)</sup> 소련이 국민당 정부와 체결한 중·소동

---

김(서울: 삼아인쇄공사, 1990), 21~22쪽.

- 10) 세르게이 곤차로프·존 루이스·웨리타이, 『흔들리는 동맹』, 15쪽.
- 11) 몰로토프는 스탈린의 발언을 회고하며 소련 외무장관의 역할은 국경선을 가능한 한 바깥쪽으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스탈린은 이데올로기보다 지정학적 국가이익을 철저히 우선시 했다고 평가했다. 시모토타이 노부오, 『북한 정권 탄생의 진실』, 이혁재 옮김(서울: 기파랑, 2005), 32~33쪽.
- 12) 미 국무부, 『중국백서』, 이영희 옮김(용인: 전예원, 1982), 157~158쪽.
- 13) 위의 책, 160쪽.
- 14) 시모토타이 노부오, 『북한 정권 탄생의 진실』, 46~48쪽.



맹조약으로부터 신(新) 중국과 체결한 중·소조약으로의 정책 변화는 소련과 중국 간의 관계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마오쩌둥이 홍군을 이끌고 장징(長征)을 거쳐 산베이(山北) 지역에 도착해서 소련 및 코민테른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까지 중국과 소련의 관계는 일종의 상호불신과 비협조적인 상태에 있었다.<sup>15)</sup> 스탈린의 지휘를 벗어난 마오쩌둥의 독립적 경향은 스탈린의 커다란 불만과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 2) 마오쩌둥의 역사관과 대(對) 북·소 인식

5·4운동을 거치면서 중국이 당면한 위기를 타파하려는 개혁세력들이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세력이 베이징대학에서 조직된 ‘사회주의(마르크스주의) 연구회’로 마오쩌둥이 여기에 참여했다. 마오쩌둥은 청년기에 중국의 공산주의 이론가들로부터 이론을 배우고 신념화했다.<sup>16)</sup> 스탈린이 지정학적 측면에서 소련의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한 것처럼 중국공산당의 지도자 마오쩌둥도 지정학적 측면에서 중국 국경의 바깥에 완충지대를 두는 것을 원해왔다. 마오쩌둥의 민족주의적 경향 또한 여러모로 스탈린의 기본적 태도와 동일했다.<sup>17)</sup> 서상문

---

15) 이와 관련된 후차오무(胡喬木)의 회고가 있다. “소련대표는 옌안(延安)에 도착해 대면하자마자 왜 중국이 병력을 집중해 일본을 공격하지 않는가를 따져 물었다. 소련의 주요 목적은 중국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자신들의 근심을 해결해주는 것이었으나 중국은 계속해서 유격전쟁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당시에는 대규모의 전쟁을 수행할 능력도 없었다. 그러나 소련은 이점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국이 소련을 지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胡喬木, 『胡喬木回顧毛澤東』(北京: 人民出版社, 1994), 88쪽.

16) 解放軍文藝出版社. 엮음, 『모택동 자서전』, 남종호 옮김(서울: 다락원, 2002), 176쪽.

17) 세르게이 곤차로프·존 루이스·쉐리타이, 『흔들리는 동맹』, 16쪽.

은 “중국의 전통적인 영토의 지정학적 개념에 따른 대한반도 인식은 한반도는 전체 또는 최소한 일정부분은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sup>18)</sup> 이는 중국이 전략을 수립할 때 한반도를 순망치한(唇亡齒寒)의 관계로서 주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다고 본 것이다.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도 있다. 중국 외곽에 위치한 북한의 존재는 2차 국공내전 당시 중국군<sup>19)</sup>의 위기 국면에서 전략적 요충지인 만주를 확보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중국군의 위기 극복 뒤에는 북한으로부터 후방지원이 상당한 역할을 하였고 결정적이었다. 조선족 부대의 참전활동이 그러하였고, 북한지역이 중국의 후방기지 역할을 한 것이 그러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 지도부는 북한과 은원(恩怨)관계라는 연대감을 갖게 되었다.<sup>20)</sup>

마오쩌둥은 대소 관계에서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했다. 1942년 옌안(延安)에서의 정풍운동(整風運動)<sup>21)</sup>에서부터 1945년 4월의 중국공산당 제7차 전국대표회의에서 마오쩌둥사상이 제기될 때까지의 목표 중의 하나는 당 내에서 소련세력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자주적으로 중국의 힘을 확대하는 것이었다.<sup>22)</sup> 소련과는 거리를 유지했으며

18) 서상문, 『毛澤東과 한국전쟁』(서울: 정문사문화주식회사, 2006), 284~294쪽.

19) 이 논문에서 중국공산당군은 ‘중국군’으로, 국민당군의 경우 ‘국민당군’으로 통일하여 기술하였다.

20) 제2차 국공내전 시기의 조선족 부대의 지원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서울: 도서출판 중심, 2000), 78~105쪽.

21) 정풍운동(整風運動)은 1942년부터 중국공산당이 근거지였던 옌안에서 벌였던 정치 문화운동으로 3년간 지속되었다. 이 운동의 결과, 마오쩌둥의 지도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마오쩌둥의 사상을 간부와 당원들에게 철저히 학습시키고, 이미 마오쩌둥과의 권력투쟁에서 패한 소련식 교조주의자 등을 다시 한번 비판하여 마오쩌둥의 사상이 중국공산당의 지도이념으로 확립되도록 하였다. 金源坤, “옌안(延安)시기 정풍운동의 배경 및 성격에 대한 고찰,” 『中國學論叢』, 제39집(2011), 245~265쪽.

스탈린의 의사에 정면으로 대치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스탈린은 제2차 국공내전 초기에 중국 혁명전쟁이 미·소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심지어 세계대전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하고 중국공산당에게 국민당과 타협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마오쩌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sup>23)</sup> 즉, 단일지도체제를 확립하면서 국가이익을 도모한다는 전형적인 목표를 추구했다. 2차 국공내전 시기에 소련의 대중국 정책은 모순되는 것이었다고 중국의 지도부는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일본이 항복하고 3개월간 적군(赤軍)은 만주에서 그들의 위치를 공고히 하면서 국민당군의 접근을 통제하고 중요지역을 주더(朱德)에게 인계하여 공산군을 지원했다. 그러나 11월에 스탈린은 이러한 태도를 바꾸어 공산군에 의해 점령된 기존지역을 국민당군이 점령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러했던 스탈린이 1946년 3월 4월 소련군이 철수하면서 다시 중국군을 도운 사실들은 마오쩌둥에게 당황스러운 것이었다. 이러한 소련의 정책들은 ‘소련은 국민당에 적대적이며 공산당에 우호적인가’하는 것에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sup>24)</sup> 그러나 2차 국공내전 이후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상황 변화는 대미·대소 목표를 수정하게 만들었다. 중국공산당은 처음부터 미국을 적대시하지 않았지만 반공주의자인 트루먼이 등장하자 미국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때로는 중국국민당의 이익에도 상충되는 미국의 일관되지 못한 대중국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장제스에 대한 지원이 주는 전반적인 인상은 중국공산당의 제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의 예상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22) 胡喬木, 『胡喬木回顧毛澤東』(北京: 人民出版社, 1994), 11쪽.

23) 房功利, “中國國防戰略演變研究(1949~2002)”(中共中央黨教 博士學位論文, 2004), 17~20쪽.

24) S. 슈람, 『毛澤東』, 김동식 옮김(서울: 두레, 1979), 232~234쪽.

보이기에 충분했다.<sup>25)</sup> 미국은 봉쇄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또한 이념의 관점에서 중국공산당에 대한 적대정책을 추진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제2차 국공내전, 미국의 국민당 지원, 중국군의 만주점령 과정에서 ‘반미 적대정책’을 취하였다.<sup>26)</sup> 중·소 간 전문을 보면 이 과정에서 마오쩌둥은 연합정부 구성, 국민당과의 종전협상, 작전계획 등 중요한 현안에 대해 스탈린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을 받았고, 마오쩌둥의 독자적인 행동은 거의 없었다.<sup>27)</sup> 마오쩌둥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연대라는 의무를 일찍 자각하였으나 민족주의와 국가이익에 대한 신념도 동시에 강화되고 있었다.

### 3) 김일성의 지도체제 구축과 대중(對中) 인식

김일성의 권력 기반은 당·정·군 내에 포진해 있는 일명 88여단 소속의 응집력 있는 성원들이다. 이 조직 성원은 소련공산당의 지원을 받아 성장하였고 정치적 기반을 다져나갔다.<sup>28)</sup>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만주지역은 소련군이 이미 점령하고 있었으나 국민당과 공산당은 만주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일본군 무장해체를 위하여

25) 휘팅, 『중국군 압록강을 건너다: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군사참고 6권)』,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옮김(서울: 해동문화인쇄사, 1989), 21쪽.

26) 요코야마 히로아키, 『中華民國史』, 박종현 옮김(서울: 신서원, 2000), 248쪽.

27) 마오쩌둥은 1956년 9월,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대표단과 회담 중 과거 중·소 관계에서 스탈린의 네 가지 실수를 지적하고, 스탈린에 대한 자신의 굴종에 대해 “감성(感性)은 하지 말라 하나, 이성(理性)은 하게 했다”라고 슬회하면서 “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언급했다. Zhang Shu Guang & Chen Jian, “Minutes, Mao’ Conversation with a Yugoslavian Communist Union Delegation, Beijing, (Undated) September 1956,” *CWIHP Bulletin*, pp. 148~152.

28) 길재준·리상진, 『중국 동북해방전쟁을 도와』(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15~16쪽.

대규모의 부대를 이동시키기 시작하였다. 1946년 무렵 이와 같은 만주의 상황변화는 신생독립국 북한에게는 안보적 측면에서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었다. 특히 100만여 명이 넘는 국민당군은 친미(親美) 국가의 군대로서 북한의 배후를 위협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북한군 건설과정에서 국경경비부대를 편성하여 한반도와 만주 국경선 부근에 배치시키게 되었다.<sup>29)</sup> 이러한 상황에서, 2차 국공내전 초기 중국군이 수세에 몰리자 김일성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조선주재 동북국판사처(判事處)’라 하고 외부적으로 ‘평양리민공사(平壤利民公司)’라는 명칭으로 상설기관을 만들었다. 이 기관은 중국 공산당의 혁명전쟁에 소요되는 물자와 인원수송, 물자교류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때, 동북국을 돕는 일에는 연안파들이 선두에 나섰다. 특히 내무상 박일우는 가장 열심이었다.<sup>30)</sup> 또한 국공내전 초기, 만주에서 수만 명의 조선족이 중국 계열의 부대로 참전함으로써, 중국군이 국민당 군대를 상대로 수적 우위를 점하고 농촌 및 중소도시를 장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처럼 조선족 부대의 확장은 중국군의 전력을 강화시키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1947년 5월 30일자 선양(瀋陽) 주재 미국 영사관이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도 만주에서 공산군의 지속적인 수적 우세를 지적하면서 그 원인의 하나로 ‘조선족 부대의 도움’을 들 정도였다.<sup>31)</sup> 제2차 국공내전에서 중국과

29) 전현수 엮음, 『쉬띠꼬프일기(1946~1948)』(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4), 71쪽 참조.

30) 중국 측 자료에서도 북한 내무상(박일우)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었다고 평가한다. 丁雪松·倪振·齊光, “동북(東北), 동베이 해방전쟁 시기 동북국(東北局) 주(駐)조선 사무소의 회고,” 『21세기에 다시 보는 해방후사』, 이정식 지음, 허동현 엮음(서울: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 255쪽.

31) 미 국무부, 『중국백서』, 434쪽.

북한의 은원(恩怨) 관계에 대해 김일성은 중국이 보답함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sup>32)</sup>

한편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갈등요소도 있었고, 그 기저에 민족적 감정이 내재된 측면이 있다. 여기에는 김일성의 민족관과 대중국관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민생단(民生團) 사건<sup>33)</sup>과 중국에 대한 불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공산당과 조선족 부대와의 갈등도 김일성의 대중국관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중국공산당의 정책은 ‘조선족은 중국의 정식 공민(公民)이면서 동시에 중국의 소수 민족’이라는 조선족의 이중성을 인정하고 있었다.<sup>34)</sup> 목적에 따라 조선의용군을 활용하는 중국의 전략들은 김일성의 대중(對中)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건국에 참여한 또 하나의 그룹으로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이 있다. 이들은 전적으로 중공의 영향력하에서 조직되고 활동하였다. 이들 중, 입북한 조선족들은 소련점령군의 지원을 받는 김일성과 함께 북한에서 국가·당 건설에 참여하였다. 이들 연안계를 지도자로 둔 조선족 부대에 대한 김일성의 이중 선택이 있다. 김일성은 북한군의 창군 과정에서 조선족 부대를 필요로 하였으나, 중국공산당과 함께 항일전투를 치르고 동지 관계로 성장한 연안계 지도자는 김일성

---

32) 예프게니 바자노프·나탈리아 바자노바,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김광린 옮김(서울: 열림, 1998), 28~33쪽.

33) 찰스 암스트롱, 『북조선 탄생』, 김연철·이정우 옮김(과주: 서해문집, 2006), 58~59쪽. 민생단 사건에 대한 배경·과정·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Han Hong-Koo, “Wounded Nationalism: The Minsaendan Incident and Kim Il Sung in Eastern Manchuria”(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1999); 한홍구, “민생단사건의 비교사적 연구,” 『한국문화』, 제25호(2000), 193~229쪽.

34) 류준수, “조선족인민의 가운데서”, 김동화, 『중국조선족독립운동사』(서울: 느티나무, 1991), 11쪽.

에게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sup>35)</sup> 김일성은 소련의 후원을 받으며 정치적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소련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반면, 중국과의 관계에는 성장과정에서의 경험과 연안계 지도자들과의 관계 면에서 깊은 갈등의 요소가 내재해 있었다. 예를 들어, 김일성은 조선의용군을 비롯한 중공 출신 조선인들의 노동당 입당에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했는데 이는 아마도 북조선 노동당 내에 마오쩌둥주의를 신봉하는 집단이 어떤 형태로든 이식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sup>36)</sup>

#### 4. 정전협상 논의와 공산권 지도자의 위협 인식

중국군에 의한 제5차 전역이 1951년 5월에 종결되고 전선은 교착되었다. 이 시기 북·중·소의 정치 지도자는 정전을 인식하게 되었고, 각국은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고려하는 가운데 정전협상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정전협상 논의 기간 북·중·소 각국이 추구한 목표를 여러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초기 정전협상 논의 기간인 1951년 5~8월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북·중·소 각국의 위협 인식을 우선 분석하였다.

정전협상 논의 기 북·중·소의 국가전략과 목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위협인식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각국

35) 이와 관련된 인원과 활동은 다음을 참조.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서울: 서문당, 1991), 157~178쪽.

36) 스킨라피노·이정식,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2권: 해방후 편(1945-53)』, 한홍구 옮김(서울: 돌베개, 1986), 507쪽에서 재인용.

이 직면한 위협에 대한 대응과 설정한 국가목표들을 이해하고, 어떠한 형태로 국가 간의 협력과 갈등으로 나타났는지 분석의 틀을 설정할 수 있다.

## 1) 스탈린의 위협 인식

정전협상 논의기 소련의 국제정치 환경은 한국전쟁 발발 전 소련이 인식하고 있던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소련이 인식하고 있던 위협은 첫째, 미국의 대소 봉쇄정책이 유럽에서 강화되고 있는 것이었다. 유럽을 소련의 확장정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마샬 플랜(1947~1951)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더욱 강화되는 한편, 분명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또한 소련의 대유럽 정책에서 중요한 장애로 여기고 있는 독일은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으며 군사력의 재무장도 추진되고 있는 점이였다. 둘째는 미국이 동북아에서도 소련의 확장을 봉쇄하고 미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의지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있는 점이였다.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 태평양 극동군사령부는 여전히 태평양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소련의 국가이익을 봉쇄하고 있는 군사적 수단이었다. 미국은 이미 타이완 해협에 미 7함대를 배치시키고 타이완에 병력을 주둔시켜 중국을 봉쇄하는 태세를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 놓은 상태였다.<sup>37)</sup> 이는 장제스(蔣介石) 정부를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중국을 압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소련까지도 봉쇄하는 태세였다. 또한 타이완과 필리핀을 연하는 극동지역 태

---

37) 존 루이스 개디스, 『새로 쓰는 냉전의 역사』, 박건영 옮김(서울: 사회평론, 2002), 140~141쪽.



평양 방위선 설정도 소련의 동남아로의 진출을 분명하게 봉쇄하고 있었다.

정전협상이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시점에서 소련은 새로운 위협요소들을 식별함과 동시에 국제상황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다. 우선 미국의 핵능력이 현저히 증대되었다. 미국은 1950년 말에 작전용 원자폭탄 369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소련에는 아마도 이런 무기가 다섯 개가 넘지 않았을 것이고, 게다가 미국제만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도 어려웠다.<sup>38)</sup> 미군이 한국전쟁에 직접 개입한 후 38도선을 돌파하고 북진한 것은 미국에 의해 소련의 극동지역이 완전하게 봉쇄됨을 의미했다. 즉, 제2차 세계대전 후 한반도 북부에서 가질 수 있었던 국가이익을 포기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은 미군의 참전으로 인한 소련의 손실된 국가이익을 전쟁 전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정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 중국군의 참전은 동북아에서의 미군의 힘의 소진을 가져오고, 이는 소련으로 하여금 유럽지역에서 미국과의 힘의 균형을 이루거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주게 된다.<sup>39)</sup> 중국의 참전과 제5차 전역 이후, 전선은 전쟁 전 상황과 유사하게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교차

---

38) 존 루이스 개디스, 『냉전의 역사』, 정철·강규형 옮김(서울: 에코리브르, 2010), 88쪽.

39) 이와 관련하여 스탈린의 기본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전보가 있다. 스탈린은 1950년 8월 27일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통령 가트발트에게 보낸 전보에서 “한국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관심이 유럽에서 동아시아로 넘어갔으며 국제적 역량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유리하다. 만약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게 되면 미국은 여기에 발이 묶이고 그러면 제3차 세계대전은 오랫동안 연기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에게 유럽에서 사회주의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하였다. “스탈린이 가트발트에게 보낸 전문(1950년 8월 27일),” ПГАС III, f. 558, op. 11, d. 62, ll. 71~72.

상태에 빠졌고 장기전화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또 다른 위협요소는 미국의 태평양지역에서의 대소 봉쇄 블록 확장에 있었다. 한국전쟁의 전선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정전협상이 공식적으로 진행되던 1951년 8월, 미국은 태평양 안보기구를 구축하여 동북아 및 태평양에서의 대소 봉쇄 블록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는 점이었다.<sup>40)</sup>

소련에 대한 위협요소는 한국전쟁 전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미국의 핵사용 능력은 한층 강화되었고, 극동지역에서의 미국의 대소봉쇄 능력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이는 스탈린으로 하여금 유럽에 역량을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주요인이었다. 이 시기 소련이 중국군과 미군과의 이러한 대치 국면을 유지시킬 수 있다면, 소련은 최소한 전쟁 전 가질 수 있었던 국가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만약 한국전쟁에서 중국이 교착된 전선을 지키지 못하고 지역을 양보해야 한다면, 소련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국가이익이 침식을 받게 되고, 미국과의 대립 긴장도가 높아져야 함을 의미했다. 이는 스탈린으로 하여금 유럽에 대한 소련의 역량 집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될 수밖에 없었다.

## 2) 마오쩌둥의 위협 인식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 후, 미군으로부터 받는 군사적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한국전쟁 초기 미국은 즉각 참전을 결정하고 타이

---

40) 차이칭윈(柴成文)은 미국이 한국전쟁으로 인해 조성된 긴장국면을 계속 유지시켜 정치·경제·군사 역량을 도모하고자 이러한 일련의 군사블록을 형성시켰다고 주장한다. 차이칭윈·차오용텐, 『중국인이 본 한국전쟁』, 윤영무 옮김(서울:한백사, 1991), 182~184쪽.

완 해협에 미 7함대를 파병함과 동시에 타이완에 병력을 진주시켰다.<sup>41)</sup> 이로 인해, 중국은 동남연안에서의 미군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물론, 국민당군과 미군이 중국 본토로 진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였다. 중국으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 상황을 타개시켜야 하는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았고, 위협의 정도는 정전협상 논의기에도 동일했다. 더군다나, 유엔군이 38도선을 돌파하여 한·중국경선으로 진격한 상황은 중국으로 하여금 대미 위협 인식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유엔군이 38도선을 돌파 상황은 중국군이 타이완 해협을 통해 미 해·공군과 대치하는 상황과는 위협의 수준이 다르다. 중국군으로 하여금 미 육군 및 그 지원전력을 상대로 중국 본토로의 진격 가능성을 대비케 하는 심각한 수준의 위협일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중국은 이 모든 위협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참전의 길을 택했으나 참전 후에도 미군과 국민당군에 의한 본토 연안상륙 가능성을 계속 주시해야 했다.<sup>42)</sup> 정전협상 논의기에도 이러한 상황은 중국을 계속 압박했다. 미국은 주도적으로 중국의 유엔 가입을 저지하였고, 이를 통해 중국이 국제정치 무대에서 의결권을 갖는 것을 막았다. 유엔은 1951년 2월 중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한편, 1951년 5월에는 대중(對中) 경제봉쇄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로써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sup>43)</sup> 특히, 장기간 항일전쟁과 국공내전을 거친 신생 중국에게 있어서 경제문제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심대한

41)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제1권』, 오규열 옮김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51쪽.

42) 위의 책, 51~52쪽.

43)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제2권』, 박동구 옮김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329~330쪽;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50년; 1948~1998』(서울: 외교통상부, 1999).

과제였고 다분히 정전협상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다. 더구나, 1951년 5월 중국 서부지방의 가뭄은 목화 공급 부족을 야기하여, 중국 내에서 2주 이상 직물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었고 소련으로부터 중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대규모의 국민현금운동도 불가피한 상황이였다.<sup>44)</sup> 이러한 상황은 중국으로 하여금 정전협상 기간 중에도 중소 지도자 간에 경제 지원 문제가 늘 논의의 주제가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sup>45)</sup>

한국전쟁 참전 후 소련과의 직접적인 갈등은 공군 지원에 관한 문제로부터 발생하였다. 전쟁 수행 간 소련이 공중 전력을 지원하지 않음으로 해서 겪는 중국군의 피해는 심대한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참전 중국군에게 후방지원을 함에 있어 미군의 폭격에 따른 추가적인 병참 소요는 중국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sup>46)</sup> 결국, 소련의 공군 지원 문제는 중국의 전쟁 참여 전에도 문제가 되었고, 전역 수행 중에도 문제가 되었으며, 정전협상 논의기에도 마오쩌둥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스탈린은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여러 제한사항을 언급하면서 공군 지원을

---

44) 윌리엄 스톡, 『한국전쟁과 미국 외교정책』, 182쪽.

45) 이와 관련된 1952년 9월, 스탈린과 저우언라이의 대화가 있다. 이 자리에서 저우언라이는 3년간 경험에서 나타났듯이 중화인민공화국은 자신의 능력을 낮게 보았고, 계획이 실현되느냐 마느냐는 중국 인민의 노력과 중국이 예상하고 있는 소련으로부터 획득하는 원조에 달렸다고 했다. “史達林與周恩來的會談紀錄[스탈린과 저우언라이의 회담 기록(1952년 9월 3일)],” 沈志華 編, 『朝鮮戰爭: 我國檔案館的解密文件(下)』(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所 史料叢刊, 2003), 1207~1213쪽; APRF, f. 45, op. 1, d. 329, ll. 54~72.

46) “周恩來關於後方掩護問題致史達林電[저우언라이가 후방엄호 문제에 관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1952년 3월 23일)],” 沈志華 編, 『朝鮮戰爭: 我國檔案館的解密文件(中)』(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所 史料叢刊, 2003), 723쪽; APRF, f. 45, op. 1, d. 337, ll. 138~139.

제한시켰다. 특히, 스탈린은 ‘미국과의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명분을 두고 중국으로 하여금 소련 공군의 참전이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기꺼이 수용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로 인한 중국군의 피해는 정전협상 초기에 마오쩌둥으로 하여금 조기 정전을 바라게 하는 계기도 되었다. 그러나 결국 정전협상 지연 쪽으로 귀결되었다. 마오쩌둥은 이러한 결과가 스탈린의 의도와 분명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었고 스탈린의 의도대로 전쟁을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마오쩌둥은 중국군의 전력 열세, 구체적으로는 현대화되지 않은 중국 군대가 이 모든 위협과 상황에 대응할 수 없는 근본 요인이라고 인식했다. 마오쩌둥은 중국군의 현대화를 통한 전력 증강만이 소련에 의 의존을 줄여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고, 미군을 동북아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마오쩌둥이 중국군의 현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추진하려 해도, 그 과정에 스탈린의 개입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했다. 결국 중국의 당면한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스탈린이 쥐고 있었다.

### 3) 김일성의 위협 인식

한국전쟁 발발 후 김일성에게 있어서 위협요소는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는 미 공군에 의한 공중폭격과 그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심화였다. 한국전쟁 초기부터서 김일성은 미 폭격에 의한 피해로 미 공군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정전협상 1차 중단기인 1951년 8월부터 10월까지 미군에 의한 하계·추계 공세가 이어졌고, 이때 이미 북한군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북한과 중국군은

진지를 갱도화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조치를 취해 피해를 점차 줄여 나갈 수 있었으나, 그로 인해서 군사적인 행동의 자유는 현격히 제한되었다. 미 공군에 의한 피해는 정전협상 기간 내내 계속되었다.<sup>47)</sup> 미 공군의 북한 전역(全域)에 대한 작전 수행은 북한의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병참기지·사회간접시설 등을 파괴하여 주민들의 동요를 일으켰고,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염전사상(厭戰思想)은 김일성의 정권을 위협할 수 있었다.<sup>48)</sup> 둘째는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에 의한 군사적 위협이었다. 정전협상이 논의되던 시점부터 이승만은 줄기차게 정전을 반대하고 북진통일론을 거듭 주장하였다.<sup>49)</sup> 1951년, 중국군의 5월 춘계공세 이후부터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 간에는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휴전회담을 위한 막후 접촉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이승만과 한국 정부는 북진에 의한 통일을 강력히 주장하며

47) 예를 들어, 1952년 7월 16일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보낸 편지에서 김일성은 미 공군의 폭격에 의한 고통을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 “적기가 평양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대해 1952년 7월 11일에서 12일 밤 사이 겨우 일주이라는 짧은 시간에 맹렬한 폭격을 가하여 평화스런 주민 6,000여명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 (중략) … 이와 동시에 개성에서 우리들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 (후략).” “拉組瓦耶夫轉呈金日成對停戰談判看法致華西列夫斯基電[라주바예프가 김일성의 정전담판에 대한 견해를 와세레브스키에게 보내는 전문 (1952년 7월 17일)],” 沈志華 編, 『朝鮮戰爭: 我國檔案館的解密文件(下)』, 1184~1185쪽; APRF, f. 45, op. 1, d. 348, ll. 65~68.

48) 1954년 3월 주조(駐朝) 소련대사관이 본국으로 보낸 보고서에 당시 북한의 피해에 대한 보고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전쟁 기간 북한의 인구 감소 숫자는 다음과 같다. “적기 폭격에 의해 죽은 수 28만 2천명 … (중략) …” 국가경제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 부분들의 하강 폭은 1953년과 1949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연료공업 77%, 야금 88%, 제지 82%, 어업 70%, 인쇄 57%, 임업 47%, 광업 33%, 식품 12% … (후략).” 위의 책, 1341~1344쪽.

49) “이대통령: 남북동포는 협조하여 국토통일에 매진하라(1950년 10월 21일),” 국방부정훈국전사편찬회, 『한국전란1년지』(서울: 조광인쇄주식회사, 1951), C18~C19쪽; “이대통령: 통일문제에 관하여 담화,” 위의 책, C22~C23쪽.

휴전 반대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었다.<sup>50)</sup> 이러한 이승만의 북진통일론과 국민적 분위기는 김일성에게 있어 위협적인 사안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했다. 국내 정치면에서의 위협도 계속 인식되는 부분이었다. 당·정·군 내 존재하는 계파간의 갈등요소이다. 김일성은 스탈린의 승인을 받아 한국전쟁을 일으키고 초기 전투에서 군사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엔군의 낙동강 선에서의 분전과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는 일거에 역전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일성의 기반세력은 상당부분 와해되었고 전쟁지도부는 작전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었다. 위기의 순간에 중국군이 참전을 결정하였고 김일성은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군의 대규모 참전은, 김일성에게 전쟁수행과는 성격이 다른 위기를 가져다주었다. 1950년 12월 초, 마오쩌둥과 김일성은 전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중·조 연합사령부의 설치에 합의하였고, 통합지휘는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인 평덕화이(彭德懷)가 맡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일성은 북한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포기하게 되었다. 반면 연안계인 박일우가 중·조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임명되는 등 연안계의 부상은 김일성의 지도체계 유지에 위협요인으로 작동되었다.<sup>51)</sup> 이러한 상황은 김일성으로 하

50) 1951년 7월 16일 이승만은 경무대를 찾은 리지웨이 장군에게 “휴전은 공산군을 도울 것이며 이로써 제3차 세계대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진작전은 공산군을 패배시켜 소련과 중공간의 간격을 벌리고 소련 위성제국을 동요시켜 세계대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며 북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10권: 휴전회담 개막과 고지쟁탈전』 (계룡: 국군인쇄창, 2012), 82, 86쪽.

51) 박일우는 중·조연합사의 부사령원 및 정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덕화이의 입장을 대변했기 때문에 김일성의 경계를 받아야 했다. 연합사 창설 논의 시에도 1950년 11월 7일 평덕화이의 지시로 김일성과 협의하기 위해 만포로 만나러 갔다. 연합사 구성에 대한 중·조 상호 입장이 달라 불편한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제2

여금 정권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었다.<sup>52)</sup>

## 5. 정전 논의 시기 북·중·소의 목표와 협력·갈등

제5차 전역 수행 후의 정전협상 논의 시기에, 북·중·소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정전협상을 대하는 입장은 각각 달랐다. 김일성은 대규모 공격작전으로의 전환을 주장한 반면, 마오쩌둥은 조기 종전 방향으로 추진 입장을 보였다. 반면 스탈린은 협상 초기에 설정한 원칙에 대해 양보함이 없는 완고한 협상을 원함으로써 공산진영 내에서도 이견이 발생했다. 이는 각 지도자들이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라는 이념적 요소보다도 국가이익을 우선시켰기 때문이다.

### 1) 김일성의 완정(完征) 추구

중국군의 제5차 전역이 종결된 후인 1951년 5월 30일, 김일성은 핑더화이에게 서신을 보내 군사적 행동이 장기화되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모두 불리하다고 강조하며 대규모 군사작전을 가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완정 의지를 밝힌 것이다.<sup>53)</sup> 그는 총공격

---

권』, 256~257, 555~567쪽.

52) 이와 관련된 내용이 1951년 9월 10일, 라주바예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보 중에 나타나 있다. 다음을 참조. 沈志華 編, 『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下)』, 1022~1026쪽.

53)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제3권』, 박동구 옮김 (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5), 126~127쪽. 이와 관련하여 김일성의 완정 의지를 추가적으로 설명해주는 자료가 있다. 러시아어 통역관 스저(師哲)에 의하면 “김일성이 분명하게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師哲·李海文, 『在歷史巨人



일자를 6월 말 또는 7월 중순으로 제안했다.<sup>54)</sup> 평더화이는 이러한 김일성의 제안을 마오쩌둥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5월 31일, 미 국무부는 캐넌(George F. Kennan)을 파견해 유엔 주재 소련대표 말리크(Yakov Aleksandrovich Malik)에게 “미국은 회담을 통해 38도선 일대에서 휴전하기를 희망한다”라고 표명하게 함으로써 김일성의 제안은 마오쩌둥의 목표 내에서 검토되어야 했다.<sup>55)</sup> 마오쩌둥의 지침에 따라, 평더화이는 7월 1일 제6차 전역 수행 준비에 착수했다. 평더화이는 7월 30일 당중앙위 군사위원회에 보낸 전문에서 제6차 전역의 목적을 “회담을 유리하게 하고, 38도선을 경계로 휴전 철군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sup>56)</sup> 중국의 정전 방침은 이 시기에 확고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김일성은 정전(停戰)보다 완정(完征)에 대한 의지를 더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의 문서에는 초기 정전협상 추진 논의시기에 김일성이 어떤 식으로 동의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도 김일성의 완정 의지가 강했음을 시사한다. 1951년 6월 3일, 김일성은 베이징(北京)에 도착하여 마오쩌둥과 회담을 가졌다. 두 지도자는 토론을 통해 “한편으로는 회담을 진행하고 다른 한편으로 공격을 한다”는 방침을 시행하기로 확정하고, 지구전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회담 투쟁의 성공으로 전쟁을 끝내기로 했다.<sup>57)</sup> 이어

---

身邊: 師哲回憶錄』(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1), 506~507쪽. 이와 관련된 여러 연구자들의 분석이 있다. 와다 하루키는 마오쩌둥과 김일성의 베이징 회담에서 김일성이 정전협상에 분명하게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일성과 가오강을 모스크바로 보내 스탈린으로 하여금 설득케 하였다고 보았다. 와다 하루키, 『한국전쟁』, 서동만 옮김(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9), 220~221쪽.

54) 선즈화, 『조선전쟁의 재탐구』, 김동길 옮김(서울: 선인, 2014), 562쪽.

55)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제3권』, 126~127쪽.

56) 위의 책, 130쪽.

57) 위의 책, 127쪽.

서 마오쩌둥과 김일성은 대규모 공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상의했다. 마오쩌둥은 6월 11일 평터화이에게 보낸 전문을 통해 작전문제에 관해 김일성과 회담한 결과를 통보하면서 “김일성 동지는 앞으로 2개월 동안 대규모의 반격을 하지 않기로 협의했고, 8월에 충분히 준비된 ‘은밀한 공격과 은밀한 주둔’ 반격을 준비할 것이다.”라고 하였다.<sup>58)</sup>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전문의 원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해서 실제 김일성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마오쩌둥이 언급한 ‘협의’라는 용어도 ‘합의’와는 다른 것이며 2개월 후의 대규모 반격에 대한 김일성의 의사도 명확히 언급하지 않은 점은 중국 측이 제시한 자료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다. 6월 3일 마오쩌둥과 김일성 간의 베이징회담 이후, 마오쩌둥은 스탈린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베이징에 와 있던 김일성과 중국인민지원군의 후방지원을 담당하고 있던 가오강(高崗)을 모스크바로 보냈다. 6월 13일에 있었던 김일성, 가오강, 스탈린 간의 회담에서 정전에 관한 문제, 군사고문 문제, 중국군 60개 사단에 무기를 공급하는 건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다. 여기서 스탈린은 “우리들은 현재 정전은 좋은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하였다.<sup>59)</sup> 이 기간에 중-소간 오고간 전문에서 김일성과 스탈린의 발언에 대한 전후 설명이 없어 실질적인 의사가 어떠한지 명확하지 않다. 즉, 스탈린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정전협상 추진을 승인했는지, 김일성의 정전협상 추진 수용은 완전했는지, 아니면 일단 수용하고 다시 남진(南進) 의사를 갖고 있었는지가 나타나 있지 않

58) 위의 책, 127쪽.

59) “史達林關於停戰和空軍使用問題致毛澤東電[스탈린이 정전과 공군 사용문제에 관해 모택동에게 보낸 전문(1951년 6월 13일)],” 沈志華 編, 『朝鮮戰爭: 我國檔案館的解密文件(中)』, 806쪽; APRF, f. 45, op. 1, d. 339, ll. 47; ABPRF, f. 059a, op. 5a, p. 11, d. 4, ll. 5, 33.

다는 것이다. 정전협상 추진과 관련하여 중·조 갈등에 대해 보고한 주(駐) 조선 소련대사 라주바예프가 스탈린에게 보고한 전보가 있다.

말리크 동지의 발언<sup>60)</sup>이 조선인들에게 비친 바는, 중국이 정전에 도달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조선이라는 이 부담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나타낸 것이라는 인식이다. 김일성은 7월의 북경행을 끝낸 후, 극심하게 기가 죽은 가운데 이 생각을 말하였다.<sup>61)</sup>

라주바예프는 여기서 “중국인은 적시에 그리고 충분히 자신의 입장과 조선인의 입장을 일치시키는 데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이는 항시 조선인의 분노를 뚜렷하게 사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중·조 대표 연합업무위원회의 모든 결정을 따라야 했는데 이 위원회는 리커농(李克農)의 지휘 아래 일상 업무를 진행하였다. 후에 김일성은 일련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이 그와 리커농 사이에 의견이 달랐으며, 리커농은 미국인에 대해 최대한 관용과 양보를 베풀었다고 원망스런 말을 하였다”라고 언급하였다. 이 시기, 김일성은 기분이 대단히 나빠하면서 박헌영과 얘기를 나눌 때, “내가 차라리 중국인의 도움 없이 전쟁을 계속 할지언정, 이런 양보를 하기는 싫구나. 내가 차라리 다시 또 유격전쟁을 수행하지, 그리고 너희들은 지상 상태로 들어갈 준비를 해라. 어쨌든 우리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이런 조선이 아니야”라고 말했다. 특히, 라주바예프는 “최근 수개월 조선인의 중국인에 대한 태도가 확실히 냉담해졌으며, 조선인은 소련에

---

60) 1951년 6월 23일, 소련 대표 말리크가 유엔의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연설을 통해 발표한 정전 제의를 말한다.

61) 沈志華 編, 『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下)』, 1022~1026쪽.

의지하는 방침을 더욱 굳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김일성은 3차 전역 이후의 중국군이 적극적으로 미군을 상대하여 대규모 전역을 수행하려 하지 않고 회피했었다고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다고 보고하고 있다.<sup>62)</sup>

김일성은 1951년 7월 초에 가서야 정전협상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적극적이었다기보다는 스탈린과 마오쩌둥과의 계서적 관계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이 시기 이후 김일성은 평터화이 중심의 중조연합사 설치 이후 강화해왔던 단일지도체제 확립을 더욱 공고히 해나간다.<sup>63)</sup>

## 2) 마오쩌둥의 군 현대화 추진

중국 지도부는 제4차 전역 이후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장기전에 대비해 3교대 순환제<sup>64)</sup>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3교대 순환 계획은 1951년 2월 18일 중공중앙군사위원회에서 확정되었다.<sup>65)</sup> 전투부대 순환제가 가동되던 1951년 4월 중순에 이르러 한반도 내에 배치된 중국군은 전투병력과 휴식병력을 합쳐 16개 군 47개 사단, 일곱 개 포병사단, 네 개 고사포 사단, 네 개 탱크연대, 아홉 개 공병단, 세 개 철도병 사단 등 총병력이 95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sup>66)</sup> 부대 3교대 순환제는 낙후한 무기와 장비를 가지고 현대화된 미군과 상대

---

62) 위의 책, 1022~1026쪽.

63)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을 참조. 이신재,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설치 배경에 대한 연구,” 『군사』, 제83호 별책(서울: 신오성기확인회사, 2012).

64)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제2권』, 373~386쪽.

65) 위의 책, 131쪽.

66) 홍쉐즈, 『중국이 본 한국전쟁』, 홍인표 옮김(과주: 한국학술정보, 2008), 304쪽.

하여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불가피한 조치였다. 한편 중국 본토에서 새롭게 교대해 한국전에 파병되는 중국군의 투입은 소련의 현대식 무기 및 장비의 제공을 전제로 했다. 결과적으로 3교대제는 전면적인 중국군 현대화를 필요로 하는 방안이기도 했다. 바로 이러한 전략적 안목에서 중국 지도부는 1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병력이 동원되는 3교대 순환제를 채택한 것이다.<sup>67)</sup> 이는 소련 지도부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규모였다. 스탈린은 중국군에 대한 물자와 무기의 지원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음을 주기적으로 마오쩌둥에게 전달하고 있다. 3교대 순환제의 채택을 결정한 마오쩌둥은 1951년 3월 1일 스탈린 앞으로 전문을 보내 이 사실을 통보하고, 최소한 2년은 더 싸워야 할 것으로 전망하며 장기전에 대비한 대규모 소련 공군의 빠른 출동을 요청했다.<sup>68)</sup> 마오쩌둥은 미 공군기의 폭격으로 인해 전선에 보내는 물자의 60~70%만 전선에 도달하고 있고, 그동안 네 차례의 전역에서 10만 명의 병사가 전사하거나 부상했으며, 앞으로도 30만 명 정도의 병력 손실이 더 예상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러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4~5월 중에 열 개 항공여단을 전투에 투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오쩌둥은 특히 “중국군이 장기작전을 준비하여야만 하고, 그럼으로써 수년의 시간에 미국인 수십만 명을 살상하여 그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알게 하여 물러서게 만들어야만 비로소 한반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여 소련의 이익과도 부합되는 내용을 은연중 강조함으로써 소련

67)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문건을 참조. “毛澤東關於準備在朝鮮採取輪番作戰的方針致史達林電[마오쩌둥이 한반도에서 윤번작전(輪番作戰)을 취할 방침을 준비 중이라는 것에 관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1951년 3월 1일)],” 沈志華 編, 『朝鮮戰爭: 我國檔案館的解密文件(中)』, 706~708쪽; APRF, f. 45, op. 1, d. 337, ll. 78~82.

68) 위의 책, 706~708쪽.

의 지원을 유도하였다.<sup>69)</sup> 그러나 이러한 중국군 현대화 움직임에 소련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소련군 고문단은 중국군의 부대 순환제에 대해서 중국이 이 전쟁 참여를 이용해 무기와 장비의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sup>70)</sup> 그러나 중국군에 대한 무기와 장비 지원 방안은 중국군 참전을 유도하기 위해 애초에 스탈린이 마오쩌둥에게 먼저 제시한 것이었다. 그러나 마오쩌둥의 이러한 요청에 대한 스탈린의 답변은 적극적이지 않았다. 스탈린은 마오쩌둥의 공군 지원 요청을 수락하면서도 끝까지 소련 공군의 전선 투입에 한계를 두었다. 심지어는 중국 안동지역에 전투기 한 개 사단을 보내줄 테니 그곳에 있는 중국 전투기 두 개 사단을 전선으로 차출해 가리는 제안도 했다.<sup>71)</sup> 한편 마오쩌둥은 1951년 6월 21일에 채차 60개 사단 분의 무기 공급을 요청했다. 마오쩌둥은 중국군 무장과 관련하여 “북한지도부로부터 1951년에는 16개 사단 분만 인도하고 나머지는 1952~1953년에 인도할 것이라는 정보를 들었다”라며, 이를 수정해 7월부터 매월 6분의 1씩을 공급해 줄 것을 스탈린에게 요청했다. 마오쩌둥은 전문을 통해 중국 측의 신청이 3개월이나 늦어졌기 때문에 중국 측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고 하며 소련의 지원이 지연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까지 했다.<sup>72)</sup> 이에 대해 스탈린은 “물리적으로

69) 위의 책, 706~708쪽.

70) 師哲·李海文, 『在歷史巨人身邊: 師哲回憶錄』, 503~505쪽.

71) “史達林關於蘇聯空軍入朝問題致毛澤東電[스탈린이 소련 공군의 북한 진입문제에 대해 마오쩌둥에게 보낸 전보(1951년 3월 3일)],” 沈志華 編, 『朝鮮戰爭: 我國檔案館的解密文件(中)』, 709쪽; APRF, f. 45, op. 1, d. 337, l. 89.

72) “毛澤東關於蘇聯援助武器裝備問題致史達林電[마오쩌둥이 무기 장비의 소련 원조 문제에 관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1951년 6월 21일)],” 위의 책, 818~819쪽; APRF, f. 45, op. 1, d. 339, ll. 64~65.

1951년에는 10개 사단 분만 가능하며 나머지는 1954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라는 뜻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스탈린은 감정이 섞인 표현을 마오쩌둥에게 전달했다. “마오쩌둥이 요청한 물량은 최소 3년 안에는 60개 사단의 물건을 완성할 수 있기는 하나 그것도 큰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소련의 공장 관계자와 군사전문가들이 마지막으로 낸 의견”이라며 스탈린의 제안을 거스르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sup>73)</sup> 결국 스탈린은 중국의 참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군 현대화 문제를 제시해 놓고는, 정작 전쟁이 교착 상태에 이르자 중국군의 현대화 문제를 중국을 통제하는 수단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후(戰後) 동북아에서 패권국으로 등장하여 소련의 국가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직접적으로는 중국군의 참전을 유지시켜 유럽에서의 미국의 역량 강화를 제한시키고, 동시에 중국에 대한 무기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중국을 소련의 통제하에 두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 한국전쟁에서 미·중이 소모전을 벌인다면, 스탈린은 미국이 주도하는 제3차 세계대전을 지연시켜 시간을 확보하고, 소련이 주도하는 제3차 세계대전을 준비하고 실행함으로써, 소련 중심의 지도체제로 세계 공산주의 사회 건설이 가능하다고 보았을 것이다.<sup>74)</sup> 따라서 60개 사단 분의 무기 공급 문제를 둘러싸고 중·소 양국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1951년에 16개 사단 규모의 장비만을 들여올 수 있었고, 나머지 44개 사단 규모의 장비는 1954년까지 나누어 인도받을 수 있었다.<sup>75)</sup>

73) “史達林關於向中國提供軍隊裝備問題致毛澤東電[스탈린이 중국에 대한 장비 공급문제에 관해 마오쩌둥에게 보낸 전보(1951년 6월 24일),” 위의 책, 825쪽; APRF, f. 45, op. 1, d. 339, l. 78.

74) “스탈린이 가트발트에게 보낸 전문(1950년 8월 27일),” РГАСПИ, f. 558, op. 11, d. 62, ll. 71~72.

스탈린은 말리크를 통해 정전협상을 개시해야겠다고 생각했던 1951년 6월 말에도 여전히 “적의 3~4개 사단에 대한 타격을 준비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마오쩌둥에게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무기 지원은 중국군 현대화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큰 영향을 주었다.<sup>76)</sup> 무기와 장비 지원에 대한 중국의 요구에 대한 내용은 1953년 3월 스탈린이 사망할 때까지 스탈린과 마오쩌둥 간의 서신 내용에서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에게는 핵심 이익이었다.<sup>77)</sup>

### 3) 스탈린의 미국 역량 소진 추구와 대중(對中) 견제

협상기간 논의기에 스탈린은 여전히 공산군 측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조종하는 방향키를 쥐고 있었다. 소련은 정전협상 전 기간에 걸쳐 협상 추진 자체에만 동의했을 뿐 정전 실현에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스탈린은 중국군과 유엔군의 전투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 1951년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미국은 미·일 안보조약 등 태평양 지역에서 우방국들과 상호방위조약을 체

75) 홍쉐즈, 『중국이 본 한국전쟁』, 310쪽.

76) 중국군 현대화와 관련하여 홍쉐즈(洪學智)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국전 이후 각 군 병과의 전면 창설에 따라 비로소 단일병과 작전에서 제 병과 연합작전으로의 전환을 이룬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군이 현대화 전쟁 단계에 들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위의 책, 370쪽.

77) 공개된 사료는 박종효 편,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 자료 I』; 沈志華 編, 『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上, 中, 下)』(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所 史料叢刊, 200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년』(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외교부 편역, 『한국전쟁 관련 소련 극비외교문서 II』(미발간) 등이다.



결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군의 역량을 소모시키고자 하는 스탈린의 목표는 한층 강화되었다. 1951년 6월 중국군의 제5차 전역 이후부터 정전협상 1차중단시기(1951.8.24~10.25)까지, 소련은 협상 추진 자체에만 동의하면서 중-미 간의 전투를 계속 유지시켰다. 특히, 미국이 동북아 및 태평양지역 우방국들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시기(1951.8.30~9.8) 이후부터는 중국에게 미군과의 전투에 집중할 것을 지속 요구하였다. 이 시점에 소련은 중국군이 군사력 현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소련은 중국의 전략적 의도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걸면서 중국을 미군과의 전투에 확고히 묶어두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다.<sup>78)</sup> 소련은 중국의 유엔 가입이나 타이완 수복, 미국의 위협으로부터의 본토 보호 등의 중국의 핵심 국가이익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 스탈린은 중국이 원하는 전략목표에 대한 지원 여부를 기제로 하여 중국에 대한 소련의 지배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sup>79)</sup> 스탈린은 이후에도 1952년 4월 유엔군이 포로송환문제와 관련하여 정전협정 일괄타결안을 제시할 때나, 같은 해 10월 8일부터 1953년 4월 24일까지의 2차 협상중단시기, 1952년 10월 이후 유엔에서 한국전쟁의 정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시기, 1953년 1월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취임한 시기 등 주요한 변화가 있었던 시기마다 줄곧 중국군과 미군의 소모전적인 전투를 지속시키고자 하였다.

스탈린의 유럽 우선정책은 동북아에서 미군의 힘의 소모를 필요로

78) 이 연구의 '4-2) (스탈린의 국제 정세 인식과 목표)' 참조; “스탈린이 가트발트에 게 보낸 전문(1950년 8월 27일),” ПГАСПН, f. 558, op. 11, d. 62, ll. 71~72.

79) 이와 관련 다음 문건을 참조. “史達林與周恩來的會談紀錄[스탈린과 저우언라이(周恩來)의 회담 기록(1952년 8월 20일)],” 沈志華 編, 『朝鮮戰爭: 我國檔案館的解密文件(下)』, 1195~1204쪽; APRF, f. 45, op. 1, d. 329, ll. 54~72.

하였다. 또한 동북아에서의 소련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도전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전략도 동시에 필요했다. 이러한 전략에는 하나의 조건이 필요했는데 소련이 한국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회피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소련은 중국을 전장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다. 또한, 중국이 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 북한군에 대한 통제권도 전적으로 중국에 위임하는 태도를 견지했다.<sup>80)</sup> 병행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소련과의 직접적인 접촉 요구도 의도적으로 차단했다.<sup>81)</sup> 그러나 이러한 중에도, 스탈린은 정전협상 전략과 요구되는 최종상태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마오쩌둥을 지도하였다. 마오쩌둥이 협상전략과 추진경과에 대해 보고하고 건의하면 스탈린이 이에 답하고 권유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시였다.<sup>82)</sup> 그러나 이러한 스탈린의 전략은 그가 사망하자 조기 정전 추진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

80) “史達林關於停戰談判問題致毛澤東電[스탈린이 정전회담 문제에 관해 마오쩌둥에게 보낸 전보(1951년 6월 30일)],” 沈志華 編, 『朝鮮戰爭: 我國檔案館的解密文件(中)』, 835~836쪽; APRF, f. 45, op. 1, d. 339, ll. 95~96.

81) “史達林關於朝鮮政府應與中國協商致拉祖瓦耶夫電[스탈린이 조선 정부는 중국과 협상해야만 한다는 것에 관해 라주와예브에게 보낸 전보(1951년 7월 2일)],” 위의 책, 850쪽; APRF, f. 45, op. 1, d. 340, l. 5.

82) 이와 관련된 스탈린과 저우언라이의 대화가 있다. 1952년 9월 19일 저우언라이가 스탈린과의 회담을 끝내면서 ‘스탈린의 모든 내용이 지시’라고 말하자 스탈린이 “지시인가, 건의인가”라고 되물었고, 저우언라이는 “스탈린 동지의 입장에서 보면 건의이지만,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지시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스탈린은 “지시라고 하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지만, 지시로 삼는 것은 신중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지시였던 것이다. “史達林與周恩來的會談紀錄[스탈린과 주은래의 회담 기록(1952년 9월 19일)],” 沈志華 編, 『朝鮮戰爭: 我國檔案館的解密文件(下)』, 1227~1232쪽; APRF, f. 45, op. 1, d. 329, ll. 91~101.

## 6. 결론

이 연구는 정전협상 기간 중 김일성과 마오쩌둥, 스탈린 등 공산진영 각국의 지도자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는 이념적 공통분모를 공유하고는 있었으나 국제정치나 국내정치의 상황변화 속에서 선택한 전략과 목표 결정은 국가이익을 우선하면서 정권의 안정성을 지향했다는 관점에서 북·중·소의 협력과 갈등 문제들을 다루었다.

한국전쟁 전후(前後) 북·중·소의 정치 지도자들은 정책을 결심할 때 국가이익을 고려하였다. 한편 지도자로서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위상과 국내에서의 정치권력의 견고성에 따라 단일지도체제 확립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의무라는 요소도 고려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정전협상 논의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한국전쟁 정전협상 논의기 공산권의 협력과 갈등을 북·중·소 정치 지도자들의 대응과 분석의 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정전협상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각국의 지도자들이 추구했던 국가목표는 이미 한국전쟁 전에 각국이 추구하던 국가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강화되었다. 둘째, 공산군 측 각국은 한국전쟁에서의 그 역할은 달랐지만 전쟁 수행이라는 심대한 위기상황에서 국가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해 나가면서 국내정치 요소와 이념적 연대를 고려하였다. 셋째, 한국전쟁 정전협상기 정치 지도자들이 위협을 인식하고 대응했던 방식은 한국전쟁 전 정치지도자들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국제정치 인식과 개인적 특성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이 공산권의 정전협상 논의기에 협력과 갈등을 유발시켰다.

한국전쟁을 통하여 중국과 북한은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고, 특히 북한은 국내 정치적 요소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군사적 충돌로서의 한국전쟁은 종결되었다. 한국전쟁과 정전협상 논의 기간 중 북·중·소가 일련의 정책을 결정한 과정을 볼 때, 정책은 국가이익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수립·추진되었고, 한편에서는 국내정치 권력의 집권화 필요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였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정책 결정에 있어 이념적 공통분모는 되었으나, 국가이익 앞에서는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이었다. 특히, 공산권 국가 간의 계서적 서열 관계에서 볼 때,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강대국이 상대적 약소국에게 자신의 정책을 강요하거나 지도할 때 하나의 명분으로 활용하는 기제로 작동된 측면이 있다.

이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우선은 신뢰할 만한 북한의 공개사료가 부족하고, 이 점은 중국의 당안문서에서도 나타난다. 공산권의 정확한 1차 사료를 얻는 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중일전쟁 종료 이전 시점에서의 김일성의 대(對) 중국 인식에 대한 부분도 보다 구체적인 사료 발굴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향후 북한과 중국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향후 추가적인 자료 보원을 통해 진전된 연구 성과를 기대한다.

■ 접수: 7월 5일 / 수정: 7월 20일 / 채택: 8월 5일

## 참고문헌

### 1. 북한 자료

- 김일성, “현 정세와 당면과업,” 『김일성 선집』, 제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3).
- 길재준·리상전, 『중국 동북해방전쟁을 도와』(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 2. 국내문헌

#### 1) 단행본

- 곤차로프, 세르게이(Sergei Goncharov)·존 루이스(John Wilson Lewis)·쉐리타이(Xue Litai), 『흔들리는 동맹: 스탈린과 모택동(毛澤東) 그리고 한국전쟁』, 성균관대학교 한국현대사 연구반 옮김(서울: 일조각, 2011).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편역, 『라주바예프의 한국전쟁 보고서』, 제1~3권(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1).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6·25 전쟁사: 1~11』(계룡: 국군인쇄창, 2004~2014).
- 국방부정훈국사편찬위, 『한국전란 2년지』(서울: 조광인쇄주식회사, 1954).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년』(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6).
- 러시아공화국 수교 문서, 외교부 편역, 『한국전쟁관련 소련 극비외교문서 I~IV』(미발간).
- 바자노프, 예프게니(Evgenii Bajanov)·나탈리아 바자노바(Natalia Bajanova),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김광린 옮김(서울: 열림, 1998).
- 박종효 편,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 자료 I』(서울: 선인, 2010).
- 선즈화(沈志華), 『조선전쟁의 재탐구: 중국·소련·조선의 협력과 갈등』, 김동길 옮김(서울: 선인, 2014).
- 슈람, S.(Schram, Stuart R.), 『毛澤東』, 김동식 옮김(서울: 두레, 1979).
- 스툽, 윌리엄(William Stueck), 『한국전쟁과 미국 외교정책』, 서은경 옮김(과주: 나남출판, 2005)

시모토타미 노부오(下斗米 伸夫), 『모스크바와 김일성』, 이종국 옮김(서울: 논형, 2012).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한국전쟁』, 서동만 옮김(서울: 창작과비평사, 2001).

중국군사과학원군사역사연구부,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제3권』(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5).

토르쿠노프, 아나톨리(A. V. Torkunov),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구중서 옮김(서울: 에디터, 2003).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한국전쟁과 중국 I·II』(서울: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2002).

홍쉐즈(洪學智), 『중국이 본 한국전쟁』, 홍인표 옮김(서울: 한국학술정보, 2008).

휘팅, 알렌(Allen S. Whiting), 『중국군 압록강을 건너다: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군사참고 6권)』,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옮김(서울: 해동문화인쇄사, 1989).

## 2) 논문

김보영, “한국전쟁 정전회담 협상전략과 지휘체계,” 『역사학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서울: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10).

량전산(梁鎮三), “전쟁기 중국지도부와 북한지도부 사이의 모순과 갈등,”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제2권』(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2).

한홍구, “만주의 한국민족해방운동과 중국공산당: 민생단사건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27권(2001).

## 3. 외국문헌

### 1) 영문 자료

Cumings, Bruce, *North Korea: Another Country*(New York: New Press, 2004).

Whiting, Allen S., *China Crosses the Yalu: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0).

## 2) 중국 자료

### (1) 단행본

師 哲·李海文, 『在歷史巨人身邊: 師哲回憶錄』(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1).

沈志華, 『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上, 中, 下)』(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所史料叢刊, 2003).

柴成文, 『板門店 談判』(北京: 解放出版社, 1989).

### (2) 논문

金景一, “關於中國軍隊中朝鮮族官兵返回朝鮮的歷史考察,” 『史學集刊』(2007).

楊奎松, “美蘇冷戰的起源及對中國革命的影響,” 『歷史研究』(1999).

## The Soviet Bloc Leaders' Strategic Objectives, Cooperation & Conflict

Choi, Yooncheol(SANGMYUNG Univ.)

The strategic objective and cooperation & conflicts of communistical block leaders during the period of Korean War armistice treaty negotiation.

This thesis covers the cooperation and conflicts of communistical leaders including North Korea · China · Soviet during the period of Korean War armistice treaty negotiation. Even if the nations tie the strong allies through the share of ideologic value, they pursued maximization of national interests in making national politics related to war execution.

During the Korean War, the soles of communist block were separated quite each other. Because North Korea engaging in war, China supporting North Korea, Soviet backing North Korea did not



partly matched their own national interests each other. They can not but suffer the process of cooperation & conflicts.

In the time of armistice treaty negotiation of communistical block, each nation's leaders shared the ideology of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and cooperated in respect of alliance relations each other. But they showed a considerable level of conflicts relations in front of national interests.

After all, the ideologic value of the duty of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was used the mechanism of the power nations forcing the weak nations' politics. The part of background above described reflects the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recognized through their own life.

In conclusion, during the period of Korean War armistice treaty discussion, when North Korea · China · Soviet politic leaders decided foreign policies, they weighed on rather the relative national interests and the leader's the establishment of domestic political power than the ideologic value of proletarian internationalism.

The background of this cooperation & conflicts partly were influenced by the recognition on international politics experienced through each political leader's lif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Keywords: Korean War, armistice treaty negotiation, Kim Il seong,  
Mao tse-tung, Stalin, national interests